

관리 번호	
-------	--

나를 보여주는 자기 소개서

2021. 6.

소 속	○ ○ 고등학교
직 위	
성 명	○ ○ ○

소 속	○○ 고등학교	직위		성명	○○○
-----	---------	----	--	----	-----

I 어린 시절의 성장기

□ 지리산 자락의 조그만 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철없던 시절이었지만, 나름의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과 좋은 우정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학교생활도 의미 있게 보냈던 시절이었다. 초등학교 때는 한지붕 아래에서 다세대가 함께 살면서 재미있지만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정의 싸움이 많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등교한 시절은 아련한 추억이기도 하다.

□ 고등학교에 들어와 한양 입성의 대망을 품고 학업에 정진을 했지만,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다. 재수를 선택했다.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 생각만 했다. 학력고사 점수가 한양 입성에 갈 수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대학이나 학과가 없었다. 망서리고 있는데 아버님과 형들이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니 사범대학을 지원하라고 권해서 학과만은 본인이 선택하여 대학에 들어왔다.

□ 대학은 신세계였다. 그 당시 생각하기로 무한한 자유가 있어 좋았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까지 술 먹고 토론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때부터 방황의 시간은 2년간 지속되었다. 그 당시 시국이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시국과 맞물려 개인에게도 가치관과 신념에 갈등이 있었다.

별 뜻 없이 들어온 사범대학이라 수업을 받으면서 인간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게 되었다. 대학에서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사회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불완전한 사고와 인간으로 교단에 서서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청소년기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언행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이 있었다.

□ 졸업 후 군입대를 했다. 군대 복무 중에 국립사범대에 임용고시를 봐야 한다는 뉴스를 듣고 당황스러웠다. 제대 후에 후배들과 선생님이 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함 하는 현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사립고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II 현장에서 에피소드

□ 처음으로 교단에서 서서 근무할 때 수기로 기안을 작성을 하는데 교감선생님께서 7번을 지적을 하였다.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왜 저리도 트집을 잡을까 화가 엄청났다. 세월이 흘러 생각해 보니 초짜인 젊은 선생님을 처음부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로 이해되었다. 그때의 일을 교훈삼아 교단에 서서 기안부터 수업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 학교에서 한 때 학생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었다. 2003년으로 기억된다. 그때 금연 업무가 힘들 것 같아 선배 교사가 회피하여 업무를 맡게 되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 유럽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그 후에 도교육청에서 엄청난 업무를 보내 주었다. 그것을 수행하면서 KBS 창원 홀에서 경남 초중등 금연 담당자 선생님을 모셔 놓고 금연 솔선 수범학교 성공 사례 발표회도 하고 학생성공 발표도 함께했다. 큰 업무를 수행해서 보람도 남다랐다.

□ 재직하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힘들기보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보람된 시간으로 기억된다. 학생부장으로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10까지 학생지도에 온 정열을 쏟았다. 학교의 선생님도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고 하는 일 마다 관리자와 교무부장, 3학년 부장이 일심단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재미있고 신바람 나게 학교생활을 했다. 후배교사들도 잘 따라줘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어 행복한 시절이었다. 지금도 그 때의 인연으로 40대의 후배 교사들과 만남을 계속하고 있다.

□ 방송통신고 교무부장과 담임을 하면서 선생님으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 나이 드신 학생들이 선생님을 만나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수업에는 진지한 태도로 수업을 듣는 태도를 보게 된다. 또한 학교 행사에서 선생님을 살갑게 챙기는 모습, 예의로서 선생님을 네하는 태도에서 선생님을 잘 선택했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III

교육현장에서 익혀온 생각들

□ 솔직하게 살아온 인생

고등학교 시절의 통지표에서 담임선생님 말씀 란에 “학생은 거짓말을 안 하고 솔선수범하고 솔직한 학생이다”라고 써 주셨다. 그 말을 염두에 두지는 않지만, 교사 생활을 하면서 주위의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그런 말을 해 주는 것을 보면 일관되게 살아온 인생인가 싶다.

□ 교육을 먼저 생각한다.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과 업무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간혹 학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을 경우가 생긴다. 문제에 직면 했을 때 교육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쉽게 풀리는 경험이 많다.

□ 평소에 사적으로 친분을 쌓아 둔 생활

선생님과 업무적으로 부서의 의견이 상충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서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평행선을 달릴 수 있다. 학교가 지향할 방향성과 평소에 선생님과 친분을 쌓아두면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육 연륜에서 얻은 경험이다.

□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으로

학교생활은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요구가 사향이 많다. 또한 상부 기관에서도 제출할 공

문서가 산적해 있다. 그리고 수업도 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직면해 있을 때 동료선생님을 배려하고 양보해 주면 다음에 봉사하고 배려가 되돌아 온다. 한 발 물러나 차분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의견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면 어려운 문제를 직장 공동체로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온 교육열

학교가 삶의 전부라고 살아온 인생이다. 대학 시절의 교육적 고뇌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지향점을 일러 준다.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생님을 하다보니 교육자 집안의 내력을 본받아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 온 것 같다.

이런 교장이 되어 드릴게요.

- ✔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향우회, 지역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학생 수 증원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 ✔ 우수한 인재 발굴한 함께 중학교, 초등학교와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가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 ✔ 학생이 졸업한 후 지역 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직업 알선과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겠다.
- ✔ 동창회, 향우회, 지역사회 유명인사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겠다.
- ✔ 학교의 학생 수 증원을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가 혼연 일체가 되어 최우선 과제를 삼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교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학생의 숨은 끼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도록 학교 시설 개 보수와 편의 시설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
- ✔ 학교가 학부모, 동창회, 지역 사회가 일심단결하여 학교 사안을 함께 공유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 학교 행사에 학부모와 지역 사회를 동참시켜 자녀 성장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 교직원을 위한 학교 내에 휴게실 확충과 편의 시설 제공, 자기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한다.
- ✔ 학교 현안을 학교 교직원과 함께 공유하며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사안을 처리하겠다.
- ✔ 학생들의 기초학습, 심화 학습 향상을 위해 실력있는 외부 강사 초청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